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처리 난망

도내 2년 이상 중단 24개소 중 현재 9개소만 정비
도 정비계획 수립... 소송 건물 많아 쉽지 않을 듯

제주지역내 공사가 중단된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은 요원한 형편이다. 특히 정비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수 있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에 의해 1차 실태조사 결과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24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19개소, 서귀포시가 5개소였다. 이중 철거 1건, 사용승인 3건, 공사재개 3건, 허가취소 1건, 활

용 1건 등 9건에 대해선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지역인 경우 1개소를 제외한 4개소가 정비된 반면 제주시 지역은 14개소가 아직 정비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비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이 7개소로 가장 많고, 판매시설 4개소, 주택과 전시장, 노래연습장, 공장 등 각 1개소씩이다. 이중 애월읍 고성리 평화로변에 위치한 관광호텔은 1994년 2월 건축연면적 4만7405㎡,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뒤 22년간 재개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이

다. 한림읍 협재리 관광호텔 역시 올해까지 22년째 20%의 공정률(골조)에서 머문채 공사가 중단됐다. 또 제주시 이호동의 국제아이스링크장도 1만156㎡의 건축연면적으로 중단 건축물 중 두번째로 큰 규모이지만 8년째 그대로이다.

건축 당시 경제성 및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착수했으나 대부분 공사과정에서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중단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건축물은 미관저해는 물론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가 하면 가설올타리 설치 및 교체 등에 적잖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대부분의 방치건물들은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활황세를 나타냈던 시기에도 공사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복이 쉽지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본격 정비에 착수했다. 올 2월 국토교통부와 LH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TF회의를 시작으로 설명회와 기초자료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어 이달 중 건축물의 이해관계 의견을 청취하는 우편을 발송하고, 9월중에는 도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된채 오랜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대부분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많아 해결을 위해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현실"이라며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지만 녹록지 않을 것 같다"

조성윤기자

“삼나무 꽃가루 노출시 알레르기 발병 ↑”

제주대 환경보건센터
국제저명학술지 발표



월 이상 제주도에 거주한 경우 25개월 이하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25개월 이상, 즉 2년 이상 삼나무 꽃가루 계절에 노출

삼나무 꽃가루에 노출된 기간이 오히려 삼나무 꽃가루 감작률(알레르기 물질에 민감한 피부 반응을 보이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지정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센터장 이근화 교수·사진)은 삼나무 꽃가루 감작률이 제주도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1년 이하 거주한 경우에는 3.8%, 1~2년 사이 거주자는 1.8%, 2~3년은 8.5%, 3~4년은 10.3%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7일 밝혔다. 특히 4~10년 거주자에서는 14.8%, 10년 이상은 19.1%의 높은 감작률을 보였다.

이러한 감작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거주기간을 분석했을 때 25개

된 경우에 감작률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다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주한 경우에는 삼나무 꽃가루에 대한 감작률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는 삼나무 꽃가루 감작률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안정기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논문은 지난 7월 국제저명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에 ‘한국 성인에서 일본 삼나무 꽃가루 계절의 노출 횟수에 따른 감작률 증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표성준기자

제주관광공사 고위간부 공금유용 혐의 기소유예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제주관광공사 고위 간부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가 받고 있는 업무상 횡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초범이고 공금을 유용한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도 대부분 홍보 등 업무적 성격이 짙었다”며 “또한 혐의가 인정된 113만8000원을 변제 공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관광객에게 자태 뽐내는 앵무새

7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화조원 동물 체험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일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썬뉴코어 앵무새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수습기자

“꽃자왈 보호지역 지정 사유재산권 침해한다”

도내 6개마을 기자회견



도내 6개 마을로 이뤄진 ‘사유지 꽃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꽃자왈 보호지역 지정 계획’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6개 마을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동북, 조천읍 북촌,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신평, 안덕면 서귀리 등이다. >> 사진

이들은 “제주 꽃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지역 40.7㎢ 가운데 90%(36.5㎢)가 사유지”라며 “이로 인해 토지주들의 경제적 피해가 불을 보

듯 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사유지를 매입하는 보상비로 4800억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매입 가격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원희룡 도정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 대책 수립 및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꽃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송은범기자

폭염 기간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강화

컨디션 나쁘면 현장투입 제외

제주동부소방서는 현장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폭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폭염 기간 동안 현장활동 직원을 보호하고 직원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소방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화재진압 등의 현장활동 시 방화복 내 온도는 약 50℃를 상회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충북 제천시 공장화재 진압 중 소방대원 1명이 탈진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2013년 8월에는 경남 김해시 플라스틱 처리업체 화재진압 중이던 소방대원 1명이 탈진으로 숨지는 사

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동부소방서는 폭염대비 현장활동 지원강화 방안으로 직원 건강 및 컨디션 체크 후 이상있는 직원은 가급적 현장투입을 제외시키고 폭염 시간에는 20분 이상 현장활동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난현장 활동 교대조 운영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방력을 출동시키고, 1시간 이상 현장활동이 예상될시 119재난현장 회복차량 및 내근 출동대를 운영하게 된다.

김현석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제주 토종 글로벌
나눔에너지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도 토종기업 나눔에너지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제주도청



한화 Q-CELL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